

# 쌍화차 맛보고 민속놀이 즐기고~

정읍시, 6일 쌍화차 거리서 '지황·쌍화 이음 어울림 한마당' 쌍화차 시음·합인 구매 기회 농악 등 공연·체험 부스도 다채



“정읍대표 특산물 지황 쌍화차 맛보러 오세요.” 정읍시는 오는 6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쌍화차 거리에서 ‘정읍 지황·쌍화 이음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읍의 대표 특산물인 지황과 쌍화차(사진)를 주제로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계획된 행사는 쌍화차 거리 상인들이 직접 만든

쌍화차를 시음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 지황 스템프 만들기, 꽃지황 손수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돼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전통 농기구를 활용한 농경문화 체험은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옹동 여성농약단의 신명나는 공연과 함께 정읍 지황의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와 풍기타, 난타, 마술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돼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차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정읍 지황과 쌍화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며 “특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즉석 장기자랑과 전통 민속놀이를 통해 축제의 열기를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초가을 고창에서 세계유산 스템프투어 어때?

7가지 보물 주요 관광지 방문 관광 이벤트 온오프라인 시작 에코백·우산 등 선착순 기념 선물



고창군과 고창문화관광재단이 공동 기획·운영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가지 보물 스템프투어’가 9월부터 온오프라인 동시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고창 스템프투어는 관외 거주자 대상으로 고창 세계유산 7가지 보물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책 참여형 이벤트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상반기 스템프투어는 온오프라인 참여자가 총 774명이 참여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오프라인 스템프투어는 고창읍성 관광안내소 등 총 6개소 지점을 방문하여 스템프북(사진)에 스템프를 찍게 되면 텀블러 에코백, 우산, 7종 뱃지가 스템프 개수마다 차등으로 선착순 지급한다. 온라인 스템프투어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스템프투어’ 어플을 설치하고 해당 관

광지에 방문하면 진동이 울리면서 자동으로 스템프가 화면에 나타나는 방식으로 매일 20명을 추첨해 마그네틱 5종, 스노우볼을 랜덤 지급한다. 안중선 재단 상임이사는 “상반기 호응이 좋았던 7가지 보물 스템프투어를 하반기에 다시 운영하게 되어 고창이 지난 소중한 7가지 보물을 대외적으로

로 알릴 수 있어 매우 기쁘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오프라인 스템프투어는 고창문화관광재단 관광팀, 온라인 스템프투어는 고창군청 세계유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고창군 1263필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23일까지...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대상 10월 31일 공시

고창군이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대상 토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263필지로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토지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 적정여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관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고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관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한국농어촌민박 전북지부 역량강화 교육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전북지부(지부장 옹화숙)가 최근 무주군 설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한국농어촌민박 전북지부 임원과 실무진이 참여한 가운데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통합산업진흥원의 후원을 받아 열린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 산하 안전교육중앙회가 주관했다.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산하 전북 14개 시군지회 실무자와 전북지부 임원과 실무진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임실지회 윤용안 지회장과 장수지회 이수경 회원의 식전공연으로 시작된 교육에서는 여가생활 안전교육과 범죄 안전교육, 교통 안전교육, 심폐

소생술 등으로 이뤄졌다. 이날 안전교육에 참여한 회원들은 테스트를 통해 행안부 산하 안전교육중앙회의 안전관리지도자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이며,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전북지부와 안전교육중앙협회에서 발행한 현판을 줄 예정이다. 옹화숙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전북지부장은 “전국에 농어촌민박은 전북 1350개소를 포함해 3만여 개가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하고 안전한 농어촌민박운영에 힘쓰길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 ‘동편제’ 텃자리서 국악축제

7~8일 운봉읍 비전길 일원...이소영 명창·노름마치예술단 등 공연

남원시가 국악계 최고의 명인·명창들이 만드는 국악 거리축제를 마련했다. 남원시는 오는 7일과 8일 운봉읍 비전길 일원에서 전북자치도와 남원시가 주최하고, 케이아트크리에이티브가 주관하는 ‘2024 제10회 동편제마을 국악 거리축제(정자마루 국악 콘서트)’가 열린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시작돼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동편제’의 텃자리에서 시작돼 최정상급 명인·명창들이 찾는 국악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첫날에는 ‘제51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대통령상 수상자 이소영 명창과 한국 전통 문화·예술

공연단인 노름마치예술단의 신명나는 소리공연이 펼쳐진다. 둘째 날에는 김윤희 명창과 한국형 관악밴드 ‘피리밴드 저를’이 선보이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만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운봉읍 화수리에 위치하고 있는 비전·전촌마을은 판소리 중시조인 송흥록을 비롯해 국악 박초월 생가와 국악의 성지가 있어 판소리 명창들의 고향이자 동편제의 텃자리”라며 “이 곳에서 펼쳐지는 멋진 국악 공연의 매력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정읍시, 산내·소성면에 농약안전보관함

8년간 98개 마을 2183개 보급

정읍시 보건소가 농약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약안전보관함 320개를 보급했다고 3일 밝혔다. 정읍시 보건소는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산내면, 소성면, 농소동 등 3개 지역에 농약안전보관함 320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번에 보급된 농약안전보관함은 농약 종류별로 칸이 나뉘어 있어 농약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 잠금장치를 설치해 중

독적인 음독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은 시 예산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한국자살예방협회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시 보건소는 2017년부터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15개 지역 98개 마을에 총 2183개의 보관함을 보급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살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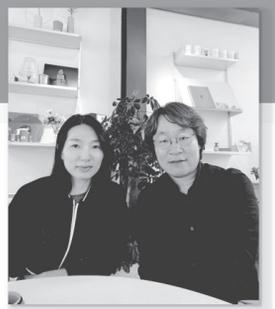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